

2016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 요 약 】

- 2016년 3/4분기 제조업 BSI는 84를 기록, 지역 제조업의 경기 부진 지속 전망
 - 조선발 수주 급감, 고용 악화 등 업황 부진에 따라 지역 조선기자재 및 연관 산업의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지역 기업 경영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고용(80), 영업이익(81), 매출액(82), 설비투자(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 하회
 - 고용 부문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 급감,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기업 전반의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신규 고용을 자제하는 등 생존을 위한 고용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영업이익 부문은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국내외 원청 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심화, 출혈경쟁 지속 등으로 부진 전망
 - 설비투자 부문은 기업들의 생산 부진에 따른 설비 과잉 지속,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내실경영 추구 및 노후 설비의 보수 주력으로 설비 투자 규모 감소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58), 1차금속(76), 조립금속(80), 자동차부품(95) 등 전 업종에서 경기 악화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조선사의 신규 수주 급감으로 수주 잔량 감소 및 일감 부족 심화, 중형 조선사 납품 대금 미회수, 금융권 자금 자원 축소 등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경영 위기 봉착
 - 자동차부품 업종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완성차 주력모델의 신차 연말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형성, 7월 완성차 파업 전망 등에 따라 부품 공급 부진 예상.
 - 1차금속 업종은 조선,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 활동 위축, 경쟁심화,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철강수요 회복 지연으로 업황 부진 전망
- 최근 경제상황 인식으로는 『장기 저성장구조 고착화』 (76.1%)
- 2016년 3/4분기 주요 대외여건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23.3%)

목 차

1. 지역 경기전망	3
2.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4
가. 부문별 전망	4
나. 업종별 전망	5
3. 최근 경제상황 인식	7
4. 2016년 3/4분기 주요 대외여건	7

I. 조사개요

1. 조사명

- 「2016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2. 조사 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 기간 : 2016. 6. 2 ~ 7. 5

- 조사표 발송 및 회수 : 2016. 6. 2 ~ 6. 17
- 조사표 집계내용 확인 : 2016. 6. 20 ~ 6. 27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6. 6. 28 ~ 7. 5

4. 조사 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350개체. (유효 응답 업체는 180개체)

5. 조사 방법

-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해당업체 면담 및 전화조사를 병행

6.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
- 매출, 영업이익, 고용, 설비투자 등 부문별 실적 및 전망
- 경제상황 인식 및 주요 대외여건 등

7.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 가 되지 않을 수 있음

8.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text{기업경기전망지수} = \frac{\text{호전(증가)표시 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지역 경기 전망

□ 2016년 3/4분기 제조업 BSI는 84를 기록, 지역 제조업의 경기 부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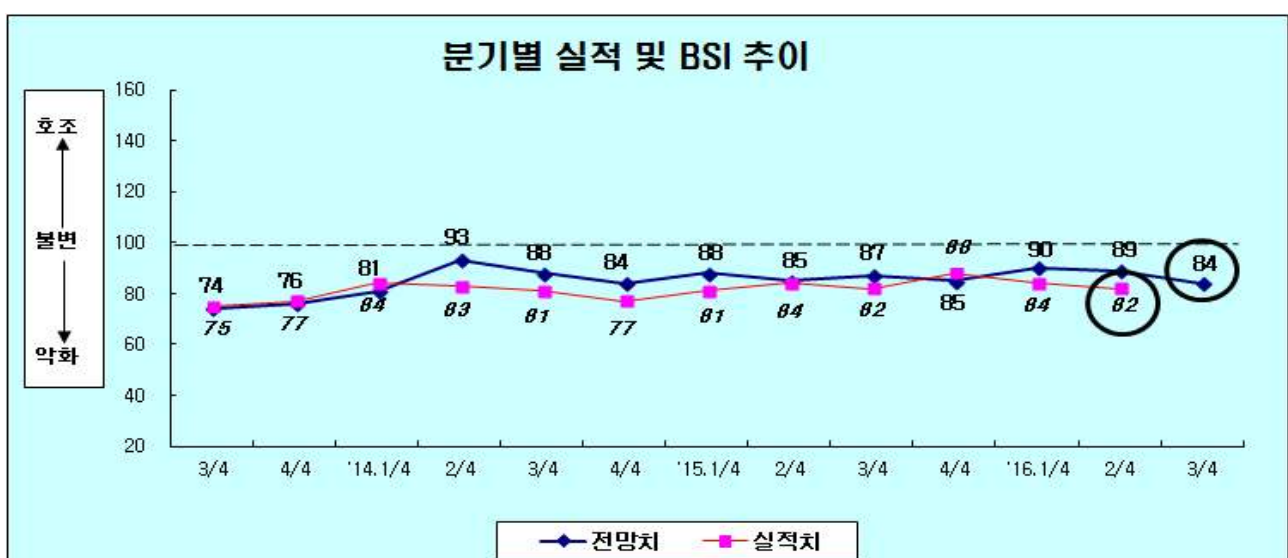
- 조선발 수주 급감, 고용 악화 등 업황 부진에 따라 지역 조선기자재 및 연관 산업의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경기 둔화, 저유가,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지역 기업 경영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고용(80), 영업이익(81), 매출액(82), 설비투자(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 (100) 하회

- 특히, 고용 부문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 급감,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과 맞물려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 기업 전반의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신규 고용을 자제하는 등 생존을 위한 고용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58), 1차금속(76), 조립금속(80), 자동차부품(95) 등 전 업종에서 경기 악화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 급감으로 수주 잔량 감소 및 일감 부족 심화. 수출 부문은 경쟁국의 수직 계열화 강화에 따른 자국 기자재 선호, 단가 인하 등으로 판로 개척이 힘든 상황. 또한, 중형 조선사 법정관리에 따른 납품 대금 미회수, 금융권 리스크 강화에 따른 자금 지원 축소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업황 부진 지속 전망



□ 2016년 2/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82를 기록

2. 부문별·업종별 경기전망

가. 부문별 경기전망

- 고용(80), 영업이익(81), 매출액(82), 설비투자(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 하회
- **고용 부문**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기업들이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 급감,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부문을 제외한 기업 전반의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당분간 신규 고용을 자제하는 등 기업 생존을 위한 고용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영업이익 부문**은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중국 및 신흥국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국내외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심화, 원가절감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부진, 대기업의 출혈경쟁 지속 등으로 영업이익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부문**은 기업들의 수주 감소에 따른 생산 부진으로 설비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설비 투자 규모를 최소화. 또한, 원가 절감에 따라 노후 설비의 경우 교체보다는 보수에 주력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문은 부진 전망

【 부문별 BSI 변화 】

구 분	실 적		전 망	
	'16.1/4분기	'16.2/4분기	'16.2/4분기	'16.3/4분기
체 감 경 기	84 →	84	89 →	82
매 출 액	78 →	86	87 →	82
영 업 이 익	77 →	83	85 →	81
설 비 투 자	91 →	83	89 →	84
고 용	90 →	83	87 →	80

나. 업종별 전망

□ 조선기자재(58), 1차금속(76), 조립금속(80), 자동차부품(95) 등 전 업종에서 경기 악화 전망

- **조선기자재 업종**은 저유가 및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 급감으로 수주 잔량 감소 및 일감 부족 심화.

수출 부문은 경쟁국의 수직 계열화 강화에 따른 자국 기자재 선호, 단가 인하 등으로 판로 개척이 힘든 상황이며, 또한, 중형 조선사 법정관리에 따른 납품 대금 미회수, 금융권 리스크 강화에 따른 자금 지원 축소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업계 경영 위기 봉착 전망

- **1차금속 업종**은 중국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철강사 수익성 개선 등의 긍정적 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에서는 국내 조선,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 활동 위축, 과잉설비에 따른 경쟁심화. 수출 부문에서는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철강수요 회복 지연 및 공급 과잉 지속이 전망되며 단기간의 업황 회복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 **조립금속 업종**은 내수 부문에서 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 및 저가 수주로 인한 수주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 부문 역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저유가에 따른 각종 오일 프로젝트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거래처 발굴 위축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부품 업종**은 완성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완성차 주력모델의 신차 연말 출시, SUV 신차 출시 부진 등에 따라 완성차 판매 감소가 전망되며, 부품 공급 역시 부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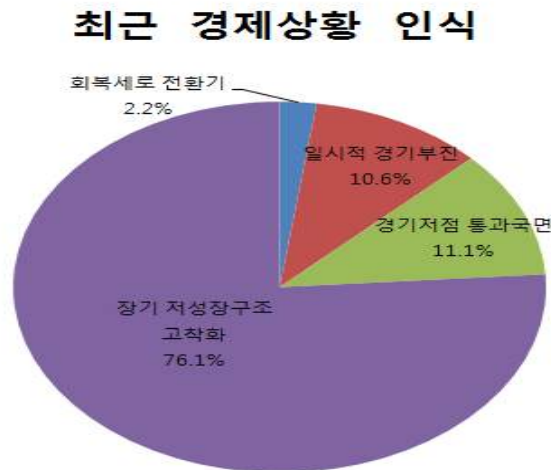
또한, 7월 완성차 업계 파업 전망에 따라 관련 업체 부품 공급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업황 부진이 전망

【 업종별 BSI 변화 】

구 분	실 적		전 망	
	'16.1/4분기	'16.2/4분기	'16.2/4분기	'16.3/4분기
음 식 료 품	80 →	80	90 →	90
섬 유 제 품	70 →	90	90 →	80
의 복 · 모 피	70 →	80	80 →	80
신 발 제 품	70 →	90	80 →	90
화 학 · 고 무	100 →	94	89 →	89
비 금 속 광 물	73 →	80	91 →	90
제 1 차 금 속	94 →	82	88 →	76
조 립 금 속	82 →	87	88 →	80
기 계 · 장 비	78 →	78	83 →	83
전 기 · 전 자	83 →	82	94 →	82
자 동 차 부 품	116 →	105	111 →	95
조 선 · 기 자 재	68 →	63	74 →	58
기 타	86 →	86	86 →	86

3. 최근 경제상황 인식

- 최근 경제상황 인식으로는 『장기 저성장구조 고착화』(76.1%)가 가장 많았음.
- 이어, 『경기저점 통과국면』(11.1%), 『일시적 경기부진』(10.6%), 『회복세로 전환기』(2.2%) 순



4. 2016년 3/4분기 주요 대외여건

- 2016년 3/4분기 주요 대외여건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의견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유가 및 원자재가 변동』(20.3%), 『경쟁국 기술추격』(18.3%), 『환율변동』(16.7%), 『미 금리인상』(15.8%), 『신흥국 경제위기』(4.4%) 등의 순

